

科學萬國博覽會 「쓰구바'85」開幕

韓國館... 技術과 化가 어울어져

科學萬國博覽會「쓰구바'85」가 개막되었다. 3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6개월간 日本의 연구학원 도시 쓰구바市에서 화려하게 펼쳐진 이 전시회는 「人間·居住·環境과 科學技術」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첨단과학축제로 세계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東京에서 동북쪽으로 60km떨어진 이바라기현 가스미가우라灣 평야의 30만평에 건설된 전시장에는 일본의 대기업·그룹 28개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47개국과 37개 각종 국제기관이 참여, 열띤 첨단과학기술 경연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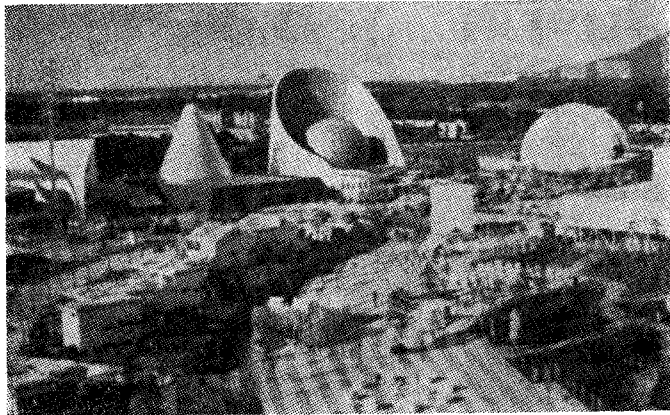
쓰구바의 하늘에 태극기를 휘날리며 연일 초만원으로 人氣를 독점하고 있는 韓國館을 紹介한다.

48個國중 4번째로 커

「창조문화 및 첨단기술개발의지」를 테마로한 한국관은 박람회장 남쪽 5백 30평에 자리잡고있다. 참가국 48개국중 주최국 日本을 빼고는 4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東洋最高의 천문대인 첨성대를 실물크기 모형으로 전시하는 외에 측우기, 해시계 등 역사적 기술품을 전시하기도한 한국관은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主題館·산업관 및 식당과 직매장으로 구분, 전통있는 文化와 약동하는 공업국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쓰구바 '85」의 展示館〉

각종 유물 製作展示

韓國의 독창적 주거생활 양식과 과학기술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인 한식기와집에 주거생활 양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특히 韓國 고유의 온돌난방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특색.

先史시대부터 李朝까지의 각종 유물을 사진이나 실물크기로 모형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는데 특히 첨성대모형, 경주안압지, 측우기등을 통해 한국의 古代선진과학기술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도 전통의상과 그 변천과정, 전통공예작품도 소개하고 있다

한글 紹介도

현재의 첨단기술에 관한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글의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 독창적이고도 과학적인 한글을 소개하는 한편 벽면에는 급속히 발전해온 최근의 산업경제상을 사진으로 전시했다. 내부의 원형 전시대에는 韓國공업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한 시추선, 항공산업 현황을 알려주는 제트엔진의 모형이 전시되고 있다.

또한 金星·三星·韓國火藥등이 만든 일부 첨단기술제품도 전시되고 있다.

韓國館내 20평 남짓한 三星館에는 산업관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것은 서울올림픽 메인스타디움모형. 이와함께 金星社에서 만든 1백개의 컬러화면을 통해 올림픽준비상황도 전달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한편기간중 오는 5월 15일 世宗大王 탄생기념일을 전후로한 일주일간(5월 14~19일)을 한국주간으로 설정, 각종 행사도계획하고 있다. 민속무용단 특별공연은 물론 사물놀이 공연도 예정돼있다. 〇